



변화와 개혁의 디딤돌

1956년 창간된 月刊 『考試界』가 2013년 6월호로서 창간 제5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여년 동안의 연륜을 뒤로하고 이제 100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月刊 『考試界』를 지금도 변함없이 애독하여 주시고 계시는 수 많은 애독자들, 그리고 좋은 글을 보내 주시고 끊임 없이 격려하여 주시는 많은 필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月刊 『考試界』가 창간될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의 어려운 경제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의 발현이라는 이념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 동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간 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경이 없어진 지금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5년간 법조인 선발을 책임져 왔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 변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月刊 『考試界』는 지난 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종합포털 회사인 『로앤비』와의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업무제휴를 맺었고, 또한 국내 최대 원격교육의 요람인 『한국방송통신

정 상 훈

(월간 『考試界』 · 고시계사 & 멘토 대표)



대학교』와도 업무제휴를 맺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면적 시행과 변호사시험제도, 국가고시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등, 月刊 『考試界』는 현재 새로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향하여야 할 목표와 확고한 편집방향에 대한 창조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많은 애독자의 성원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수험생들과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기탄없는 비판과 발전적인 충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시로 『www. gosi-law.com』 사이트와 에듀올 『www. eduall.kr』 사이트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시대에 맞게 장기적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 관련미디어와의 제휴 및 네트워크화 하여 月刊 『考試界』의 성장동력을 국내에서 국제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월간 또는 계간의 형태로 발행되는 수많은 전문 법학지와 각 학회에서 왕성하게 간행하는 학회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月刊『考試界』만의 독특한 법이론 제공의 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月刊『考試界』가 방대한 학술 게재하는 학회지 및 다른 법률 미디어와는 다르게, 기존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는 자료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법률미디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출판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출판시장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전자출판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전자출판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이 때에 月刊『考試界』전자책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주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月刊『考試界』의 잠재력을 활짝 꽃을 피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종합미디어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저희 임·직원들은 임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3일 저희 月刊『考試界』의 30여년 동안 발행인이셨던 金尙哲 변호사님께서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평생 정의와 자유를 회구하며 온몸을 던져 시대의 아픔을 함께 했던 故人의 유지를 잘 받들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